청소년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다

–'행복한 가정 운동' 대구 지역 대표 장경화 루시아 씨 서면 인터뷰

진행 · 정리 / 김유정_세실리아 | 본지 기자

주일학교 교사들은 위령 성월을 맞아 아이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면 할수록 조심스럽고 난감할 것이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데다 교사들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탓이다.

장경화 루시아 씨는 '행복한 가정 운동'(이하 '행가운') 대구 지역 대표로 일하면서 부모,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생명 캠프'와 그밖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해 왔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서면으로나마 조언을 청해 들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교육과 상담, 두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성장기 자녀나 사춘기-성인 자녀를 위한 부모 역할 훈련, 부모나 교사를 위한 교회 성교육 지도자 과정(틴스타 과정 포함), 웃음 치료, 칭찬 프로그램, 교리교사 역할 훈련, 에니어그램' 등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상담은 주로 '청소년의 성, 가족, 부부, 자녀'와 관련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 캠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 취지와 교육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여건 상, '생명 캠프'를 주최할 수가 없지만 기관이나 성당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줍니다.

'생명 캠프'는 인간의 잉태 순간(생명)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룹니다. 특히 사춘기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고,

사제, 수도자, 부부 등 어떤 삶을 살더라도 '생명 문화'를 창출할 능력을 길러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997년 대구 행가운이 생긴 후부터 젊은 부부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죽음을 쉽게 생각하거나 죽음의 문화에 무감각해지는 원인들을 알게 되었지요.

특히 30년 전,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교구에서 나온 후 지금은 혼자서 생명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캠프'를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은 학교가 가르치는 성과 교회가 가르치는 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놀라며 자신의 부모들은 성에 대해 거의 침묵했지만, 자신들이 부모가 되면 반드시 성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사이트(http://family.daegu.kr)를 통해 학생들에게 낙태와 안락사, 사형 제도에 대해 평가와 토론의 마당을 제공함으로써 '죽음의 문화'로 기울었던 사고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주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자살이나 죽음을 쉽게 선택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은 단순히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른과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미 피임의 사고는 낙태로 이어지고 가정 폭력, 성폭력, 미혼모 문제, 이혼, 혼외정사, 성 매매, 성병, 안락사, 유전자 조작, 자살 등의 문제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성사의 삶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인구 정책에 따라 살며 생명을 거부하거나 쉽게 낙태를 하는 등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왔고, 그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모범이 되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아는 기회를 주기보다 아이들을 중심(학업 성적 등)으로 잘하고 못하는 것을 평가하며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다소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은 금기하는 것에 더욱 호기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런 현상이요,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죽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11월이 위령 성월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신앙 안에서)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고유한 영역이므로 주시는 것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인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초점을 두라고 말해 주세요. 그렇게 산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는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리 지식과 교사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먼저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교리 지식만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존재도, 두려워해야 할 존재도 아니다. 그저 삶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없었듯이 죽음도 그러하다. 교리교사들이 그 점을 기억하고 있다면 청소년들을 '생명의 문화'를 살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다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정성껏 답변해 주신 '행복한 가정 운동' 대구 대표 장경화 루시아 씨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